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정 현 속

수원대학교

〈요 약〉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가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문제의식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물질적 세계관에 바탕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스토아학파의 행복론을 비판한 후 진정한 행복의 규정으로 영원불변성을 제시한다. 그의 시간론에서 영원불변한 것은 오직 하느님뿐임을 밝히고, 따라서 하느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보인다. 시간과 일체 만물은 하느님이 무(無)로부터 창조한 피조물이므로 가변적이고 무로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체의 피조물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uti)될 수 있으나, 최종 목적으로 소유하려들면 안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하느님을 향할 것인지, 저급한 위계의 사물을 향할 것인지는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랑이란 동력은 그 대상을 하느님으로 하면 질서 있는 사랑인 카리타스(caritas)가 되어 궁극적 행복으로 이끌고, 저급한 사물을 사랑하는 쿠피디타스(cupiditas)에 빠지면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 불행의 책임은 각자의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에 달려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행복론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황폐화를 겪고 있는 현대인에게 종교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행복을 얻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 주제어: 행복론, 영원성, 자유의지, 사랑, 카리타스, 쿠피디타스, 종교교육

I. 서 론

고대와 중세를 가름하는 양 시대의 전환점에 위치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종합한 그리스도교 교부철학자로서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고백록』을 비롯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은 철학 신학 이론이 풍부하게 전개되

고 있으나, 그의 이론적 전개의 목적은 실천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인간 삶에서 핵심적 주제는 행복이라고 보았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인간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적 사색의 전반에 걸쳐 행복 추구의 편력을 볼 수 있다. 초기 저작인 『행복론』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행복에 이르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자유지론』에서 논하는 등 『고백론』, 『신국론』, 『기독교교육론』과 같은 그의 대표작에서 행복론은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영원불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유의지적 사랑이 하느님을 향한 카리타스(caritas)일 때 성취 가능하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궁극적 진리요 지고의 선(善)인 하느님의 향유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극복하고자 한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와 스토아주의적 행복론이 현대에서도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던 물질적 세계관과 생명관이 현대 교육에서도 과학적 내용과 수준은 다를지라도 철학적으로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비판한 고전적 행복론을 일별한 후 하느님 신관에 바탕한 그의 독창적 행복론을 그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이의 종교교육적 의의를 논한다.

II. 고전적 행복론

1.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에피쿠로스주의 쾌락 개념을 반박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야말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며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다. 쾌락이란 좋은 것이고,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진정한 목표이며,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는 유독서스(Eudoxus)와 에피쿠로스(Epicurus)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쾌락주의적 주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을 누릴 것을 권한다. 쾌락만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쾌락은 왜곡된 의미의 육체의 관능적 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능동적 쾌락과 수동적 쾌락을 구분하였다.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적 쾌락은 결과적으로 고통을 수반함으로 본능을 억제하는 절제를 강조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과음 과식을 피하고 은둔하여 마음의 동요를 제거하는 수동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쾌락

주의는 은둔, 고요, 절제와 고행에서 오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이른바 아타락시아를 삶의 궁극목표라 하였다.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적 쾌락주의는 그의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 및 영혼관이 전제되어 있다. 그는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을 수용하여 만물이 원자 즉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었다고 확신했으며, 생물체가 생명 없는 물체에서 유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만물은 물질적인 근원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간과 영혼도 물질로 환원되며, 영혼의 죽음도 원자들의 분해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현세에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¹⁾

그는 쾌락의 반대인 고통은 죽음이나 여러 악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욕망과 무절제에 있다고 보고, 아타락시아를 얻기 위해 은둔과 금욕을 권했다. 그러므로 관능적 쾌락이나 과음 과식 등은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물질적 영혼관을 정면으로 반대했으며, 플라톤의 반물질주의적 관점을 수용했다

사물에 대한 상(像)이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 속에서 보이고 판단될 때 물질적인 대상이 아님이 사실이라면, 그런 근원도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4원소로 불리는 4개의 물체, 즉 흙도, 물도, 공기도, 불도 아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면 그것을 창조한 하느님이 어떻게 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그 모든 철학자들로 하여금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하라.³⁾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적 세계관을 반박하고, 기독교의 하느님과 영혼에 관한 사상에 따라 하느님의 영원성과 인간 영혼의 불멸을 선양한다. 인간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불멸하는 것이므로 궁극적 행복은 현세의 쾌락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은 하느님의 신성(神性)이므로,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하느님을 떠나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원자론적 영혼관의 또 하나의 문제는 쾌락주의가 중국에는 육체적 쾌감과 다름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절제와 금욕을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주장하긴 했지만, 영혼도 물질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는 관능적 쾌감과 영혼의 평안이 질적으로 같은 차원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비판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기독교적 신관, 영혼관, 세계관에 따라 쾌락주의를 비판하고 진정한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1) J. Hopsers, *Human Conduct: Problems of Ethics*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2), p.65.

2) Ibid., p.154.

3) A. Augustinus, *De civitate Dei*, VIII,5, 김종흙·조호연 옮김, 『신국론』(경기: 현대지성사, 2002), 409쪽.

2. 스토아적 행복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넘어 스토아적 행복론에 관해서도 비판적 논의를 한다. 스토아주의는 그리스의 제노와 크리스푸스에 의해 창시되었고, 에픽테투스(Epictetus)가 대표적 스토아주의자이다. 이들은 우주를 합리적인 질서의 세계로 보며, 자연의 법칙 혹은 섭리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곧 덕이다. 우주의 질서인 로고스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인은 본성적으로 평등하다고 본다.

스토아적 세계관은 숙명론적 인생관을 가져왔다. 그들은 ‘인간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과 ‘인간적 영역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을 시도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자연의 현상을 거스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로써 불행을 가져온다. 반면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걱정과 휩싸이지 않는 것은 현자의 지혜로운 처사이다.⁴⁾

스토아적 관점에서 행복은 로고스의 법칙에 순응하여 외적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완전히 억제된 ‘부동심(impassibilitas)’의 경지에 이를 때 얻어지는 것이다. 운명에 따라 부과하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자세가 행복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적 행복론의 기반인 결정론적 세계관을 반박하였다. 그는 신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인정하였다. 신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한다고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연적 원인과 의지적 원인을 구분하여 신이 자연적 원인을 제공함과 더불어 인간에게 의지적 선택을 허락했다고 하였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예지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이 운명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여부에 관건이 있다고 보았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행복을 얻는 핵심적인 요소가 걱정과 휩쓸리지 않는 것, 즉 운명의 장난에 좌우되지 않고 감정이 손상됨을 막는 아파테이아(apatheia)라고 하였다.⁵⁾ 그러므로 아파테이아의 계발을 위한 자기 수련을 통하여 운명적 상황에 무관심해지는 현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 보았다. 이러한 ‘걱정’과 현자의 관계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계와 스토아주의자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음을 말하고, 이어 그들이 용어상 차이일 뿐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현자들조차 자신들에게 법을 부과하는 이성에 의하여 조절되며 통제된다고 할지라도 이들 걱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말한다. 플라톤주의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견해가 바로 이와 같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4) G. Stock, *Stoicism* (Port Washington, N.Y.: Kennikat Press, 1969), pp.39-41.

5) J. Hospers, op.cit., p.159.

는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며 소요학과를 창설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스토아주의자들은 현자가 이런 걱정과 종속되어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⁶⁾

스토아주의자들의 견해와 정신적 걱정 및 격동에 관한 다른 철학자들의 견해 사이에는 차이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셈이다. 왜냐하면 양측이 모두 현자의 정신과 이성이 이런 것들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때문이다.⁷⁾

플라톤이나 스토아주의자들이나 모두 현자의 이성은 걱정과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감각하다고 하여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학파의 이상인 부동심 즉 아파테이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무감각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생명체로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 비정상상의 병적 상태일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스토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감각의 상태에서 얻는 행복이란 것이 일종의 허구라고 하였다.

만일 부동심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누가 이런 마비 상태를 모든 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완전한 행복에는 공포심이 주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지만 진리를 완전히 등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사랑과 기쁨이 행복한 생활에 없으리라고 주장할 것인가? 그뿐 아니라 부동심은 아무 공포나 고통이 없는 상태라면, 현세에서 하느님을 따라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그것을 피해야 한다.⁸⁾

요약하면 스토아주의는 운명론적 세계관과 무감각적 부동심인 아파테이아의 수행을 주장했으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스토아적 행복론의 문제점을 들어 비판하고 진정한 행복의 조건과 성취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시도한다.

3. 플라톤적 행복론

행복의 문제를 다루어 온 역사를 일별하면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에픽테투스의 스토아학파는 물질적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영혼을 비롯한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스토아주의자들은 불이 살아있기도 하고 지성적이기도 하고 세상과 그 안에 포함된 만물의 창조자 즉 사실상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물질적 세계관에 반하여 플라톤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자요 진리의 빛의 근원이요, 모든 축복을 나누어주는 분으로 인정했다.⁹⁾ 플라톤은 철학을 3분야 즉 자연철학(존재론), 논리학(인식론), 그리고 윤리학으로 나누고, 각 분야 별로 하느님을 기술

6) *De civitate Dei*, IX, 4, 451쪽.

7) *Ibid.*, IX, 4, 453쪽.

8) *Ibid.*, XIV, 9, 672쪽.

9) *Ibid.*, VIII, 5, 408쪽.

하였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하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이 물질적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느님의 불변성과 순일성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¹⁰⁾ 그들은 인간이 만물을 인식케 하는 정신적 빛이 만물의 창조주인 하느님과 같다고 확인했다.¹¹⁾ 플라톤은 궁극적인 선을 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며, 하느님을 알고 닮는 사랑만이 덕에 도달할 수 있으며, 지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 있어서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무형적인 본성을 지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¹²⁾

아우구스티누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이야말로 고전 철학 중 가장 우수한 철학이라고 했으며, 또한 그리스도교에 가장 근접한 철학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에 따르면 참된 최고의 선은 바로 하느님이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유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상태에 있다. “플라톤은 철학자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도 이것보다 더 광채를 내는 말은 없는 것이다”¹³⁾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을 극찬하였다. 또한 플라톤이 하느님은 전적으로 선하다는 선 일원론을 가졌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선악 이원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주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과 그의 후예인 플로티누스 등 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을 통하여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에픽테투스의 스토아주의를 극복하고 그 자신의 행복론을 정초하는 방향을 잡는다. 여기에 그의 자유의지론, 시간론, 창조론 등 고유한 사상을 접목시켜 그 자신의 독창적 행복 철학을 세운다.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

1. 행복의 규정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성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¹⁴⁾와 같이 행복의 추구는 인류 보편의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누가 행복한 사람이며 어떻게 행복을 얻는가 등에 대해서는 수 없이 많은 의견이 있다. 포만감이나 육체의 평안을 행복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부귀영화를 행복의 조건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처세술을 행복의 길로 오해

10) Ibid., VIII, 6. 410쪽.

11) Ibid., VIII, 7. 412쪽.

12) Ibid., VIII, 8. 413쪽.

13) Ibid., VIII, 11. 418쪽.

14) Ibid., X, 1. 478쪽.

할 수도 있고 스토아 학파처럼 부동심의 획득을 행복의 길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행복에 관한 논의는 너무도 다양한바 바로(Varro)라는 학자는 행복에 관한 논의의 수를 288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철학자들은 선과 악의 끝에 대해서 무수히 다른 의견을 표명했으며, 그 문제를 열심히 연구해서 될 수만 있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려고 했다. …

이 허무한 인생에서 지혜를 연구하노라고 한 사람들은 금생에서 이 두 끝, 즉 최고선과 최고악을 발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들은 비록 여러 가지 오류를 범했지만, 타고난 통찰력 때문에 진리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최고선과 최고악을 영혼, 혹은 신체, 혹은 양쪽에 두었다. 철학의 이 세 분파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마르쿠스 바로는 그의 저서 ‘철학에 대하여(De Philosophia)’에서 굉장히 많은 견해를 얻어냈다. 그는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쉽게 288개라는 학파 수를 얻었다. 실지로 이만한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행복의 규정부터 시도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부인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행복할까?”¹⁶⁾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논의에서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일련의 논의 끝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¹⁷⁾ 재물과 같은 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성 모니카는 “이 사람 자신이 소유한 것 중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해도 그는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끊임없이 욕구하게 만드는 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¹⁸⁾고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은 영원한 것의 소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영혼의 절도가 필요조건임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진정한 행복은 영원불변성이란 그의 시간론과 연계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영혼의 절도 즉 인간의 자유의지와 필연의 관계를 맺는다. 영원불변의 존재이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은 하느님이므로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느님의 향유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그의 시간론, 자유의지론, 하느님의 신앙론에 따라 그의 행복론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15) Ibid., XIX, 1, 917-918쪽.

16) A. Augustinus, *De beata vita*, II, 10, 박주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서울: 누멘, 2010), 22-23쪽.

17) Ibid., II, 10, 11, 23-27쪽.

18) Ibid., II, 11, 26쪽.

2 행복의 시간론적 특성 : 영원 불변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은 시간에 관한 독창적이고 심오한 사상을 전개한 것으로도 유명한 저술이다.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인간 내면의 심리적 과정으로 규정된 그의 시간론은 단순히 시간의 인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과 창조 및 영혼의 분열과 사멸이란 실존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평을 열었으며, 행복론에서도 핵심적 조건으로 제시된다.¹⁹⁾

진정한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된 영원불변성은 그의 시간론을 전제로 성립된다. 먼저 존재론적 측면에서 그는 세계는 무(無)로부터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⁰⁾ 물질적 질료는 물론 형상 또는 공간과 시간까지도 무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은 그의 원천적 발상으로 그 이전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서 볼 수 없는 창의성을 보여주고 또한 현대물리학적 대폭발 이론과도 합치되는 합리적 착상이다.

시간과 만물이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변적(mutable)이며, 이들은 완전 불변의 존재가 못되고 형태가 변하기도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모든 피조물은 무에서 나왔고 무로 다시 떨어지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가변적이고 시간속에 있으므로 이들의 소유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느님뿐이다. 그는 『고백론』에서

영원과 시간은 비교할 수 없나이다. 긴 시간이 긴 시간이 되는 것은, 동시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의 흐름이 오래 계속되는 까닭이나, 영원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지나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현재적으로 존재하나이다. 반면 시간은 온전히 현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 과거는 항상 미래에 의하여 밀려나고, 미래는 항상 과거를 뒤따르나이다.²¹⁾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현재하는 것이며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간과 영원성의 사상은 그의 진정한 행복의 기반을 제공한다. 시간 속에 있는 일체의 피조물의 소유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직 영원불변이신 하느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란 것이 핵심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하여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바탕한 쾌락주의나 스토아 학파의 행복론을 혁파함과 동시에 플라톤의 사상을 성경의 창조설과 결합하여 그의 독창적 행복론을 정초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시간관은 인간의 실존적 불행과 행복의 올바른 추구를 제시

19) 정현숙,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과 영원성』, 『종교교육학연구』 제3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2), 137쪽.

20) 위의 논문, 134쪽.

21) A. Augustinus, *Confessionum*, XI. 11(13), 김광채 옮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351쪽.

하는 기틀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양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서 의식된 시간 경험이며, 과거는 기억, 현재는 감지(感知), 미래는 예상(豫想)이라는 마음(영혼)의 현재 작용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 시간관은 인간의 불안한 실존으로 이어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각의 흐름에서 정신 활동은 기억, 감지, 예상으로 뻗어나가는데 시간 체험은 마음의 분열이다. 이러한 분열적 흩어짐은 창조 전의 무(無)로 떨어짐을 향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 체험에서 항상 무의 위협 즉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행복의 상실이라는 실존적 불안을 대면하게 된다.²²⁾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본질을 깊이 천착함으로써 인간의 실존적 불행의 근본 원인과 진정한 행복의 추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양태를 체험하는 인간은 가변적이고 무화(無化)되는 인간의 영혼 속에서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왜냐면 인간의 영혼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인 영원불변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분열되고 흩어져 없어지는 영혼을 하느님께로 끌어 모아 하나로 되려고 해야 하며, 이러한 하느님의 신앙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심리적 시간론 관점에서도 쾌락주의나 스토아 학파의 행복론을 넘어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이론을 제공하였다.

3. 행복과 자유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은 예지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앎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다 고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오히려 인간에게서 자유의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보았다. 하느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한다는 그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시간론과 영원성에 있다. 하느님의 예지는 과거, 현재, 미래로 분열된 인간 마음의 시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영원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성이란 인간 마음의 시간 측면으로 보면 모든 순간에 현존함으로 나타난다. 이런 초시간적 관점에서 하느님의 앎은 전지적이고 예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예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억제하지 않으며, 나아가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란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고, 그의 저술 『자유의지론』에서 뿐만 아니라 본고의 주제인 행복론에서도 핵심적 주제이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선택한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부여했으며,²³⁾ 선하게 사용하는가 혹은 악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의지의 자유를 자연현상에서 운동처럼 영혼의 운동에 비유했으며, 의지의 방향이 어느 것으로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심각

22) 정현숙, 앞의 논문, 137쪽.

23) A.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I, 3, XVIII, 48, 성염 역주. 『자유의지론』(왜관: 분도출판사, 1988), 255쪽.

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진정한 행복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 해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향해 나가지 않고 그 반대로 나가면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명제가 자유의지에 의해 분명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론에서 인간이 행복을 얻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²⁴⁾

1) 의지의 핵심 요소로서의 사랑

의지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는 플라톤이 에로스(Eros)에 대해서 논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지만 플라톤에 의해 철학적으로 정착된 개념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성의 역할이지만, 이 판단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추진력을 주는 것은 에로스라고 보았다. 에로스는 긍정적 의미에서 모든 성취의 원동력이며, 일종의 욕구이며, 고상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다.²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와 사랑이 결합되어 영혼의 운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이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자유의지에 힘을 주는 사랑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적인 두 가지 사랑의 개념, 즉 선한 사랑 카리타스(caritas)와 악한사랑 쿠피디타스(cupiditas)가 나온다.

2) 사랑과 질서: 카리타스 대 쿠피디타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는 질서가 잡혀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존재는 위계질서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 위계질서는 창조론과 시간론에 바탕한다. 유일한 참 존재자는 하느님이며,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였다.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고,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이며, 최상위의 존재이다.

하느님은 개개의 사물에 위계적으로 존재를 부여했다. 어떤 피조물에는 더 풍성한 존재를 부여하였고, 다른 피조물에는 제한적인 존재를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정돈하였다.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고, 영적인 것은 고귀하며, 인간은 동물에 비해 더 높은 존재로 구분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사물의 질서에 바탕하여 사랑의 질서라는 그의 독창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피조물을 그 존재의 위계에 맞게 사랑하면 바른 사랑이요, 반대로 위계적 분수에 어긋나게 사랑하면 잘못된 사랑이다.

24) Ibid., II, 3, XIX, 52, 261쪽.

25) Platon, *Great dialogues of Plato*, Translated by W.H.D. Rous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6), p.69.

공정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물을 평가할 때에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랑해야 할 것은 반드시 사랑한다. 적게 사랑해야 마땅한 것을 더 사랑하든지,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을 동등하게 사랑하든지, 동등하게 사랑할 것을 적게 또는 많이 사랑하는 일이 없다.²⁶⁾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계가 높은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가장 위계가 높은 존재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리타스(caritas)라 명명했다. 달리 말하면 자유의지가 불변의 하느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은 질서있는 사랑이며,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애덕(愛德, caritas)이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그 본성상 하강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의지가 낮은 위계의 저급한 사물을 사랑하면 이는 잘못된 사랑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쿠피디타스(cupiditas)라 하였다. 사랑의 질서를 어기고 영원불변의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악덕(惡德)이 된다.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는 동일한 원천, 즉 자유의지의 사랑(중립적 의미: amor)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의 위계에 따라 질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카리타스는 행복으로 쿠피디타스는 불행으로 이끈다.

여기에서 행복과 불행의 책임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유도된다. 행복과 불행은 자유의지의 선택에 있으므로 인간 각자의 마음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며, 결코 하느님의 결정이나, 외부의 악신이나 또는 다른 외적 환경 요인이 아니란 것이다. 특히 불행의 책임이 우월한 신적 존재나, 사회적 상황이나, 물질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의 오용 즉 쿠피디타스에 있음은 행복론에 있어서 핵심적 주장이다. 이는 고전적 행복론을 타파함에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다.

IV.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1.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

하느님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다진 교부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그의 하느님에 관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시간론, 자유의지론적 관점을 간략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26) A.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I. 27(28), 김종흡 옮김, 『기독교 교육론』(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45쪽.

존재론적 관점에서 하느님만이 유일한 참된 실재(實在)이며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하느님이시고 동시에 모두 한 하느님이시다. 각각 완전한 실재(實在)이면서, 동시에 모두 한 실재이다.²⁷⁾ 하느님은 만물을 무(無)로부터 창조하셨으며 만유의 원천이다.

이는 피조물이 당신에 의해 무(無)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오나 당신에게서 유출된 것은 아니고, 당신의 피조물이 아닌 그 무엇에서 나온 것 역시 아니며, 혹은 그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 무엇에서 나온 것 역시 아니니이다. ...

본디 천지의 질료와 천지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이다. 하오나 당신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창조하셨으니, 질료는 절대무(絶對無)에서 창조하셨고, 세계의 형상은 무형적 질료에서 창조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질료에 형상이 부여되는 일이 아무 시간 간격 없이 일어났나이다.²⁸⁾

인식론적 측면에서 유일 최고의 진리는 곧 하느님이다. 그는 진리의 표상으로 빛을 사용하였고, 이 빛을 아는 것이 인간 이성의 능력이라고 보았다. 하느님은 인간의 이성을 창조하였고, 따라서 인간의 이성보다 더 우월하고 영원한 이성이다.

이 빛이 나보다 높은 것은 이 빛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이요. ... 무릇 이 빛을 아는 자는 영원을 아나이다. 무릇 참된 사랑은 이 빛을 아나이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함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주야로” 당신을 사모하나이다.²⁹⁾

가치론적으로 하느님은 지고의 선(善)이며 선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 역시 선하며, “만물이 개체로서도 선하고 전체로서는 더더욱 선하니 이는 우리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음 이니이다”.³⁰⁾ 존재는 곧 선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 명제는 마니교의 선악 이원론을 청산하고 얻은 결론이다. 악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선의 결핍이며, 어둠이 빛의 부재와 같은 이치이다. 악이 초래하는 불행과 그 책임은 존재들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유의지의 지향에 있다는 것이 선 일원론의 관점이다.

시간론적 탐구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은 시간까지도 무(無)로부터 창조했다는 것, 따라서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하며, 과거-현재-미래의 구분을 떠나 항상 현재이며 이를 영원성(永遠性)이라고 하였다. 하느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느님이 무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현재란 의미이며, 이로부터 하느님은 불변(不變) 즉

27) Ibid., I. 5(5), 32쪽.

28) *Confessionum*, XIII, 33(48), 468쪽.

29) Ibid., VII, 10(16), 191쪽.

30) Ibid., VII, 12(18), 193쪽.

영원불변이란 의미가 성립한다.

하느님의 예지(豫知)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시간 속에서 보면 상호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느님의 예지는 영원성이라는 시간 초월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고,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결과는 시간적 현상계서 파악하는 것이므로 서로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배타적이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예지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느님이 예지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원하거나 원치 않는 우리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류가 없는 예지를 가지신 그 분이 장차 나의 능력이 존재하리라고 예지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내게 더 확실하게 엄존하게 된다.³¹⁾

하느님의 예지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장 높은 위계의 존재를 사랑하여 행복에 이를 것인지 또는 낮은 위계의 존재를 사랑하여 불행에 이를 것인지는 인간 개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였다. 인간 각자의 책임 있는 행위와 행복을 연결함으로써 쾌락주의나 스토아주의들의 물질적 세계관에서 오는 수동적 행복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

2. 하느님과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영원불변한 행복이어야 하며, 따라서 일시적인 것, 빼앗기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 변하는 것 등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그런데 영원불변은 하느님만의 속성이다. 하느님은 영원불변의 진리이고, 또한 궁극적인 선(善)이다. 반면에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며 무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영원불변한 하느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의 모든 소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사랑에 의하여 그분을 향해가며 또 그런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우리의 축복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아주 열띤 논쟁을 벌여왔던 우리의 선은 하느님과 결합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지성적인 혼이 참된 덕목들로 주입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분을 영적으로 포용함으로써이다.³²⁾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야만 한다. 다른 피조물들은 결코 영원불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 그의 자유의지를 하느님을 향하는 것

31) *De libero arbitrio*, III, III, 8, 289쪽.

32) *De civitate Dei*, X, 3, 483쪽.

과 피조물을 향하는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는 카리타스(caritas)와 쿠피디타스(cupiditas)라고 구분 하며, 대상의 관점에서는 향유(frui, 즐긴다)와 사용(uti)이란 분류를 한다.

향유(frui)는 그것 자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향유는 하느님을 향유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피조물을 향유하려들면 잘못이다. 부와 권력과 명예 등을 향유하려드는 것은 착각에서 오는 것이다. 카리타스를 통해 하느님을 향유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사용(uti)은 최고의 목적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건강, 부, 권력, 명예 등은 사용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것을 집착 향유하려들면 안 된다. 쿠피디타스는 사용 대상을 향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랑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는 행이나 불행의 요인이 아니다.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여 하느님을 향유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행복의 성취에 도움이 된다. 많은 불행의 요인은 사용의 대상과 향유의 대상을 혼동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3. 현대사회의 물질적 세계관과 오도된 행복추구

아우구스티누스가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고전적 행복론(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에픽테투스의 스토아주의)과 현대사회의 행복관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 그 근본적 원인은 에피쿠로스주의와 스토아주의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이 현대 과학적 세계관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의 세계관은 원자론이었다. 만물은 미세한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있고 영혼도 역시 원자로 되었으며 죽으면 분해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후세계를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현세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스토아학과도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었으며, 만물의 기원은 불(火)이라고 하였다. 이 불에서 공기, 물, 흙이 생겨나고 이들로부터 다시 삼라만상이 생겼다고 보았다. 이들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물질이라 하였고, 신, 영혼, 정의, 덕도 모두 물질이라 보았다. 영혼의 불멸을 부정했으며, 신도 역시 하나의 물체로서 우주 전체가 신의 몸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에 덧붙여 철저한 우주적 결정론을 주장했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이미 영원으로부터 너를 위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³³⁾는 후기 스토아학파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kus Aurelius)의 말이다. 유일신 개념이 없었으며, 우주적 법칙 즉 자연의 로고스를 따르는 것이 덕이며, 인간적 감정을 모두 없애는 아파티아(Apathia)를 이상으로 생각했다.

33) 수원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교양철학』(수원: 수원대학교출판부, 1984), 112쪽.

현대물리학과 생물학적 세계관 역시 소립자론에 바탕한 원자론적 물질주의인 점에서 이들 두 고전학과와 유사하다. 생명관은 물질적 화학에 바탕한 세포와 신경으로 정신현상까지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영혼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물학이나 인체 해부학에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적 생명에서 영혼이나 사후 세계의 역할은 없다. 또한 신(神)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없다. 적어도 물질적 존재들과 생물의 생리에 대하여서 영혼이나 신은 완전히 분리 제거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점에서 에피쿠로스학파나 스토아 학파와 대동소이하다. 과학적 내용과 수준에서는 크게 달라졌지만 철학적 수준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우주적 세계관에서도 근대 뉴턴식 과학에서는 철저한 자연과학적 결정론이 확고하여, 스토아학파의 완성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연법칙에 의한 운명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치 이천 년 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뉴턴에 의해 입증이라도 된 것 같았으며, 이를 라프라스적 결정론이라 불렀다.³⁴⁾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이 출현하여 고전물리적 결정론에 확률개념이 들어와서 논의가 복잡해지긴 했으나 과학적 결정론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과학의 세계관과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세계관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문제는 적절한 종교교육이 없다면,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궁극적 진리라도 되는 듯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주입 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 교육의 현실이란 점이다. 따라서 현대 사람들의 행복추구는 쾌락주의나 스토아주의보다도 오히려 더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철학적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교육의 정신적 폐단을 막는데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바탕한 종교교육의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이천 년 전 고전사회와 현대사회는 물질적 세계관과 그로 인한 잘못된 행복의 추구 양상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전적 행복론을 혁파하고 진정한 행복을 제시했듯이 현대사회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을 오도된 행복추구를 수정하는 처방으로 새롭게 조명해보아야 한다. 이 처방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을 핵심으로 한 세계관에 기반한 것이므로 각 교단의 신앙교육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종교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겠다.

먼저 물질적 세계관에 바탕한 무신론과 영혼 부재적 인생관을 타파하고 하느님은 유일

34) 소광섭, 『물리학과 대승기신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4쪽.

실재이며 궁극적 진리 및 지고의 선임을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교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느님의 영원불변성과 시간 초월성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적 논의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과 사물들은 가변적이며 무상(無常)하여 사용(uti)할 것이지 궁극적 향유(frui)의 대상이 아님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각종 신체적 쾌락의 추구, 사회적 부, 명예, 권력의 추구가 모두 무상하므로 사용의 대상은 될지언정 향유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감정의 수행이나 신체적 수련까지도 역시 진정한 행복의 대상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로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인간의 영혼이나 몸은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부활해서 상상할 수 없는 벌을 받으며, 선한 자는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것이 사실임을 굳게 믿어야 한다.³⁵⁾

넷째로 진정한 행복은 지고의 선(善)이며 영원불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즉 카리타스(愛德)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하느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며 향유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 모든 사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 불변하다고 한 것들만이 즐거움의 진정한 대상이 된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영원불변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용한다. ...³⁶⁾

끝으로 자유의지와 각자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향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쿠파디타스적 저급한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일시적인 쾌락에서 결국 불행으로 화를 얻을 것인지는 각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 자유의지는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장해준 것임을 이해토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각자의 자유의지에서 오는 것이며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사회일반에게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돌아간다. 자유의지와 책임이 아우구스티누스적 행복론이 현대인에게 주는 핵심적 메시지이다.

35) *De doctrina christiana*, I, 21, 40쪽.

36) *Ibid.*, I, 22, 20, 40쪽.

V. 토 의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란 전제를 출발점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은 진정한 행복의 규정과 성취를 추구해 나간다. 고대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도 행복한 삶은 누구나 원하는 바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로마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적 세계관에 빠져 쾌락이나 부의 축적을 행복이며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는 세대가 풍미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복론』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현대 사회는 로마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물질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배적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물질과 경제가 사회의 주도적 세력이 되었고, 부의 축적이 최고의 가치로 획일화 되어 가기 때문이다. 물질문명에 의한 경제적 풍요가 정신의 평안보다도 도리어 황폐화를 불러오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겪으며 기술적 능력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전도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구분했던 사용(uti)해야 할 수단적인 것들이 향유(frui)해야 할 목적보다 더 중요시 되거나 목적으로 여겨지는 전도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혼란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삶의 질적 저하와 불행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은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물질적 세계관에서 하느님 중심의 정신적 세계관으로 방향전환을 유도하는 그의 사상과 교육이 시대를 넘어 여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할 또 한 가지는 행·불행의 책임이 자신에 있다는 논리의 전개이다. 자신의 불행의 문제를 남과 사회로 돌리려는 무책임 풍조가 휩쓰는 현대 한국의 사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치유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은 특히 의의가 있다. 그의 논리적 사유 전개에 따라 진정한 행복을 규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카리타스적 사랑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과, 각 개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행복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교육을 통해 현대인의 전도된 행복 추구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진, 「현대의 윤리적 상황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중세철학』 제8호, 한국중세철학연구소편, 왜관: 분도출판사, 2002.
- 김태규,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시간과 창조」, 『동서철학연구』 제44권, 한국동서철학회, 2007.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6.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와 은혜의 윤리학』, 서울: 북코리아, 2008.
- 소광섭,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선한용,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시간과 영원」, 『기독교사상』 vol.1, No.2, 대한기독교서회 1957.
- _____,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시간에 대한 문제연구」, 『신학과 세계』 vol.9,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1983.
- 송병구,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종교학연구』 vol.22,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회, 2003.
- 수원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교양철학』, 수원대학교 출판부, 1984.
- 신상희,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이해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철학』 vol. 59, no.1, 한국철학회, 1999.
- 양명수, 『어거스틴의 인식론』,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이석우, 「자유의지와 역사」, 『건대사학』 10, 건국대학교 사학회, 2003.
- _____,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1995.
- _____,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서양고대사연구』 3, 한국서양 고대역사문화학회, 1995.
- 정현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종교학연구』 제2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2.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조명설의 종교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6.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과 영원성」, 『종교교육학연구』 제3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2.
- 주영흠,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7.,
- Augustinus, A., *Confessionum*, 최민순 옮김, 『고백록』,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 _____, *Confessionum*, 김광채 옮김, 『고백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_____, *De Civitate Dei*, 조호연·김종흡 옮김, 『신국론』, 서울: 현대지성사, 2002.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김종흡 옮김, 『기독교교육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_____,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주, 『자유의지론』,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_____, *De Magistro*, 김영국 역, 『교사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 _____, *De Trinitate*, 김종흡 옮김,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2007.
- _____. *De Vera Religione*. 김영국 역. 『참 종교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 _____. *De Predestinationes Sanctorum*. 박일민 옮김.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 서울: 야훼의말씀. 2010.
- _____. *Mia Madre*. 박규태 옮김. 『내 어머니, 모니카』. 서울: 좋은씨앗. 2008.
- Babcock, W. S., *The Ethics of St. Augustine*. 문시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8.
- Garry, Wills. *Saint Augustine*. 안인희 옮김. 『성 아우구스티누스』. 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2005.
- Hospers, J., *Human Conduct: Problems of Ethics*.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2.
- Platon. *Great Dialogues of Plato*. Translated by W.H.D. Rouse, N.Y.: New American Library. 1956.
- Stock, G., *Stoicism*. Port Washinton, N.Y.: Kennikat Press. 1969.

원고접수 : 2011년 1월 16일 1차 심사 : 2월 1일 게재승인일 : 2월 13일

연구자 소개 : 정현숙

① 전공 : 교육학 / 소속 :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 영성교육, 종교와 심리, 성인들의 영성.

③ 주요논저 :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원리의 원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조명설의 종교교육학적 의의』

④ E-mail : hschung@suwon.ac.kr

Abstract

Augustine's Eudemonics and Religious Education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The theme of Augustine's Eudemonics was the nature of the true happiness and the way to reach the true happiness. He proposed eternity and immutability as the criteria of the true happiness after criticizing Epicurus' hedonism and stoicism which were based upon materialism. He argued that God is the only origin of the true happiness because God and only God is the eternal and immutable being according to his theory of time. Time and all other beings are created from nothing by God, and therefore temporary and mutable. They should be utilized as means for reaching the true happiness, and should not be mistaken as the ultimate aim. To reach the true happiness one may use his or her own free will to determine his action toward God or things of low order. The caritas which is an orderly love toward God will bring the true happiness to those who used free will and power of love. On the other hand those who directed their free will and cupiditas, the love toward thing of low order, will meet misery .

Therefor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of happiness or misery lies on the right application of each person's free will. Augustine's eudemonics is significant as a direction for religious education of the contemporary people whose spirit is overwhelmed by the materialistic abundance.

Key words: Eudemonics, Eternity, Free Will, Love, Caritas, Cupiditas, Religious Education